

## 취학전환기 맞벌이 가정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와 집행기능 곤란 및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관계: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The Relationship Among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Problem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and Domestic Social Capital in Children from Dual-Income Households in the Transition Period: Mediating Effects of Domestic Social Capital

천희영<sup>1</sup>

Hui Young Chun<sup>1</sup>

###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among attention deficits/hyper activities problems(ADHD problem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and social capital inside the family, especially with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inside the family, in children from dual-income household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401 children from dual-income households from the eighth wave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They belonged into lower and higher ADHD problems groups that showed below 25% or more than 75% of ADHD screening items' total score.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ediating effect test by PROCESS macro 3.5.3..

**Results:**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and social capital inside the family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lower and higher ADHD problems groups. A mediating effect was found based on the nega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social capital inside the family including mother's warm childrearing behavior and positive coparenting, and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Children's ADHD problems had a negative influence on each of the two social capital variables and each of the two variables had a negative influence on the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Conclusion/Implications:** These results emphasize the meaningful role of social capital inside the family in the development of first graders with ADHD problems from dual-income households.

\* 본 논문은 2021년 한국보육지원  
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sup>1</sup> 제1저자(교신저자)

고신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e-mail : chunhy@kosin.ac.kr)

**key words** ADHD problem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social capital inside the family, warm childrearing behavior, positive coparenting

## I. 서론

취학전환기는 유아 중심의 개인적 욕구에 따른 자유로운 환경의 유아교육에서 벗어나 보다 구조화된 환경의 학교교육으로 전환하는 시기이다. 취학전환기 아동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학교환경의 변화를 시도하는 자기 자신과 새로운 학교규칙과 교과 중심의 학습활동 적응을 요구하는 학교간의 균형을 맞추어가는 과정을 경험한다(김민진, 2008; 김수정, 광금주, 2010; 노보람, 박새롬, 박혜준, 최나야, 2020; 전숙영, 2018). 입학 초기의 갈등과 혼란으로 학교에 부적응한 아동은 초등 1학년뿐 아니라 장기적인 학교생활만족도와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김민진, 2008) 부적응적인 성인기를 맞을 수도 있으므로(Knudsen, Heckman, Cameron, & Shonkoff, 2006; Rice, Frederickson, & Seymour, 2011) 취학전환기는 주목해야 할 시기이다.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접근에서 취학전환기 아동의 학교적응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생태계의 중심에 있는 아동 자신의 개인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최옥희, 김용미, 김영호, 2009). 그 개인적 특성 중에서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걸림돌이 된다(이동미, 장혜인, 김호정, 배진, 박주희, 2021; 전숙영, 2018). DSM-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SM-5 Task Force, 2013)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Hyper activity disorders; ADHD)는 충동성과 과잉행동을 동반한 심각한 주의력 결핍 증상으로 진단된다. 사회적·정서적 결손, 학습 결손, 그리고 파괴적 행동장애와 같은 정신과적 장애와 같은 부차적인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Ringer, 2020). ADHD는 아동기 초기에 발생하는 신경정신 질환으로 2017년 현재 5~14세 아동 중 5~10%의 유병율을 추정할 때 국내 ADHD 잠재환자 수가 약 36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보고되었다(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2018). 어린이집 유아 대상으로 DSM-IV ADHD 문항에 의한 ADHD성향 유아 출현율이 16%로 보고되기도 했다(황현주, 2011).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ADHD로 진단받거나 진단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ADHD의 주요 특성인 주의산만, 과잉행동과 충동성을 보이는 아동이 많이 발견되고 교사는 이러한 아동들을 다루기 힘든 고위험군 아동으로 본다(강옥려, 2014). 유아기까지는 ADHD의 주요 증상 행동의 심각성을 부모가 간과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준수해야 할 학교규칙이 명백해지고 유목적적인 행동을 요구받게 되면서 ADHD 특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이혜정, 2004).

취학전환기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은 자신과 환경을 먼저 이해하고 현실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집행기능에 기초하여 가능하다(Cicerone et al., 2000). 전전두엽의 발달과 함께 초기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지속적인 발달을 보이는 집행기능(송현주, 2014)은 아동 스스로의 자기조절(self-regulation)을 돕는 신경심리학적 과정으로서(Barkley, 1997)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기 행동의 조절과 문제해결을 위한 인지행동적 전략의 관리와 관련된 인지기능이다(전숙영, 2018). 인지기능의 위계 상 상위에 속하는 인지기체인 만큼 개념과 평가방법에 따라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포함된다(송현주, 2014; 이주미, 2018). 국외 연구에서는 억제, 작동기억 및 인지적 유연성의 순으로, 국내 연구에서는 억제, 인지적 유연성, 작동기억 그리고 목표설정의 순으로 많이 다루어졌다(이주미, 2018; Baggetta & Alexander, 2016). 국내 연구의 예로서 송현주(2014)는

Carlson, Moses 그리고 Claxton(2004)이 선행연구들을 정리해 제안한 것과 유사하게 아동기와 청소년기 집행기능 요소로 계획-조직화, 행동통제, 정서통제, 부주의의 4개 요인을 제시하였다. 강문선(2019)은 모든 학습과정에서 인지·정서·행동적 자기조절, 인지과정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작동기억, 학습의 유지와 학습내용의 주관적 가치와 관련된 동기, 자신과 학습환경 변화에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인지적 유연성을 학습 중심의 집행기능의 하위요소로 보았다.

그런데 정상 지능의 ADHD아동이라도 충동의 통제, 행동의 억제 기능이 부족하고 주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ADHD의 일차적 증상으로 학습문제를 경험한다고 보고되었고(Barkley & Cox, 2007), 특히 충동적 성향으로 인한 과업수행의 계획과 대안 찾기, 지속적인 사과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알려진다(민운정, 2013; 전숙영, 2018). 초등학교 생활 초기에 ADHD아동이 집행기능 결함으로 겪게 되는 불리함은 학업 관련 인지적 기능의 결핍뿐 아니라 또래 및 교사와의 사회관계 형성의 결함에서 나타난다. ADHD아동은 반응억제, 자기조절의 부족(Barkley & Cox, 2007)으로 인해 또래와의 대화나 상호작용 행동에 방해가 되고 욕구충족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또래의 말을 잘 경청하지 못하므로 또래 갈등과 거부를 자주 경험하게 되며(Hoza, 2007), 더 심각하게는 또래 괴롭힘의 가해자가 되거나 배척을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Wiener & Mak, 2009).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과 친밀한 관계 유지가 학교생활 적응에서 중요한 측면을 차지하고 있으나 교사와의 의사소통, 자신의 욕구와 교사의 요구 간 조절의 어려움으로 현장 교사를 힘들게 한다(전숙영, 2018; 전은아, 2019).

이처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를 보이는 아동이 집행기능 곤란을 수반한다는 것은 ADHD 특성과 집행기능 곤란 모두 전두엽의 기능 손상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요인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ADHD적 특성의 원인을 집행기능 곤란이라고 보는 집행기능 가설(Barkley, 1997)과 집행기능의 발달이상을 ADHD의 필수요소로 볼 수 없다는 입장(Willcutt, Doyle, Nigg, Faraone, & Pennington, 2005)간 상호비판적인 논의가 있다(송찬원, 2009; 민운정, 2013). 관련하여 Kendall(1993)은 인지적 결핍 가설을 통해 ADHD아동은 인지적 결핍 요인에 의해 자신의 상황에서 적절하게 인지적 기능을 적용하지 못한다고 가정하고 이로 인해 학습 및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에 ADHD로 인한 인지적 결핍의 문제를 발견하고 개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맥락에서 집행기능 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집행기능의 활성화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다수 발표된 바 있다(김민주, 하은혜, 2011, 2013; 박은미, 정대영, 2012; 박지현, 송현주, 2016; 윤주연, 이효신, 2011; 전숙영, 2018; 조정연 등, 2010). 본 연구에서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와 집행기능의 관계에서 집행기능이 선행 필수요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과 인지적 결핍 가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집행기능 활성화 연구들을 근거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적 문제 수준에 따라 집행기능 곤란에서 차이가 있는지, 나아가 집행기능 곤란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가정하고 이러한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취학전환기 아동의 학교적응에 있어 생태학적 미시체계 내 부모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제도적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학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느끼면서 학부모가 되어가는 이행적 특성을 보이며 학교교육에 대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게 된다(강문정, 2017; 노보람 등, 2020; 전진원, 전자배, 2016). 학부모로서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체계의 규범과 운영방식, 학교적응적 행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녀의 학업성취도나 교육 포부,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있어 부모와 자녀 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를 ‘가정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inside the family)이라 한다(김세영, 2012; 이현철, 천희영, 2021). 가정내 사회적 자본은 부모와 자녀간 사회적 관계망의 질로서 새로운 목표 달성을 위해 아동의 특정 행동을 증진시켜주어 아동의 학교적응에 기여하는 생산적 자본으로서(Coleman, 1988), 학령기 아동의 가정내 사회적 자본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자녀 학습에 대한 부모의 개입, 부모 관여, 부모감독 등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있다. 그러나 사회학과 교육학 영역에서의 사회적 자본 연구 활성화에 비해 아동·보육학 영역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키워드로 활용하여 간학문적 접근에 의한 아동 발달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가 소외되어 왔다(이현철, 천희영, 2021)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맞벌이 가정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사회적 자본에 주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내 사회적 자본으로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부모의 긍정적 공동양육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특히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취학전환 시기 아동의 학교적응을 돕는데 지지적인 역할을 하며(김형연, 김민주, 2020; 민미희, 2018),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단기종단적 연구들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행복감을 예측할 수 있다(문영경, 2021; 이운경, 김민주, 윤기봉, 2018; 정승아, 이수진, 2016; 한영숙, 2020)고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아동과 부모간의 관계를 부모 공동양육(coparenting)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있다(Margolin, Gordis, & John, 2001; Van Egeren & Hawkins, 2004). 긍정적 공동양육은 양육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며 부모-자녀간, 배우자간에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배우자의 양육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고 그 양육에 합의하는 가족통합(family integrity)을 포함한다(Feinberg, 2003). 따라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함께 부모의 긍정적인 공동양육을 취학전환기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에 관련된 가정내 사회적 자본으로 주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 나아가 일과 생활의 균형이 시대의 주요 현안이 될 만큼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임양미, 2020; 조규영, 이설아, 2019). 통계청(2021)에 의하면 2020년 하반기 7세~12세 학령기 아동을 자녀로 둔 유배우자 가구 대비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53.9%로 조사되어 초등학생의 과반이 맞벌이 가정의 자녀임을 알 수 있다. 취학전환기 자녀를 둔 취업 부모는 자녀가 영유아기 때보다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감소해 돌봄 시간의 공백 증가, 학교행사나 학부모 모임을 위한 시간의 요구(이재희, 김근진, 엄지원, 2017),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문제를 해결하는 조력자 역할을 새로이 수행하기(Collins, Madsen, & Susman-Stillman, 2002) 등에 있어 외벌이 가구의 부모보다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자녀의 양육과 발달을 위한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는 생각은 맞벌이 부모에게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므로(Cooklin et al., 2014) 학령기 자녀와의 상호작용 및 온정적 양육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고(이운경 등, 2018; Cho & Allen, 2012), 일-가정 양립에 따른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부모 공동양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이아름, 2020).

이상과 같은 온정적 양육행동과 긍정적 부모 공동양육 요인이 맞벌이 가정 취학전환기 아동의 가정내 사회적 자본으로서 아동의 개인적 특성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및 집행기능 곤란 간의 관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 먼저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와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살펴보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어머니는 아동의 과잉활동적이고 충동적이며 부주의한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 더 많은 지시와 통제를 하고 더 많이 과보호하거나 야단을 칩으로써 양육행동의 질이 낮다는 보고가 있다(Barkley & Cox, 2007). 아동의 부주의는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실수와 과제의 미수행을 결과하여 양육자는 일일이 간섭하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자녀에 대해 포기·방치하는 경우가 많다(신연희, 정현희, 최성열, 2010). 이처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는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하기 어렵게 하고 ADHD아동의 어머니는 일반아동의 어머니 보다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한다(송연주, 2015; 이미아, 2009). 또한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를 보이는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 양육의 책임과 부담에 의한 부정적 정서가 부모-자녀 관계 뿐 아니라 부모 공동양육과 같은 다른 가족 상호작용으로 전이되는 특성이 있다(Anthony et al., 2005; Deater-Deckard, 1998, 2005). 그러므로 자녀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는 배우자간에 또 그 자녀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가족통합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었다(한영숙, 2019). 따라서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심할수록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부모의 긍정적 공동양육 수준과 같은 양육의 질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의 수준에 따른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정도의 저학년 시기 아동의 개별적 특성인 집행기능 곤란과 가정내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어머니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최근 여러 편 발표되었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나 애정과 관여 등을 포함하는 권위적 양육행동은 유아 및 아동의 낮은 집행기능 곤란과 관계가 있고(김소라, 신나나, 2020; 김형연, 김민주, 2020; 민미희, 2020; Meuwissen & Englund, 2016) 1년 후의 문제행동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박보경, 노지운, 2020)고 보고되었다. 반면 맞벌이 가정 부모의 강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알려졌다(임양미, 2020). 또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메타분석한 연구들(Fenesy & Lee, 2018; Valcan, Davis, & Pino-Pasternak, 2018)에 비추어 볼 때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 합의도가 높은 긍정적 공동양육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과 부적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보고들에 근거할 때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에 의해 가정내 사회적 자본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부모의 긍정적 공동양육의 수준이 낮아지고 그 낮아진 가정내 사회적 자본에 의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도가 높아지는 매개효과를 가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에 해당하는 두 변인을 포함한 다중매개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기존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집행기능 곤란 및 부모의 양육 관련 연구 대부분은 ADHD 진단을 받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ADHD증상을 보이지만 진단을 받지 않은 아동 대상의 연구는 유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다(민운정, 2013; 황현주, 2011). 이에 우리나라의 ADHD잠재 아동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 연구들의 시사점은 한계가 있었다. ADHD증상을

심각하게 보이지 않는 ADHD잠재 아동이라도 ADHD진단 아동과 유사한 수준의 결손을 나타내며(Cho et al., 2009) ADHD진단 아동과 유사한 학교 부적응을 경험한다고 알려진다(송연주, 2015; 최진오, 2010). 이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의 연속선상에서 대조가 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효과적으로 ADHD잠재 아동을 이해하고 학령기 초기에 적절한 개입을 통해 학교적응을 도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취학전환기 맞벌이 가정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수준의 양극단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 차이를 통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와 집행기능 곤란 및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확인하고, 나아가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직접적인 목적을 두었다. 이로써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의 학교적응을 돕고 그들의 맞벌이 부모에게 유능한 초등 학부모되기에 도움 되는 정보를 제공하며, 아동발달 연구에서 간학문적 접근에 의한 사회적 자본 연구에의 관심을 높이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고 연구문제 2에 따라 설정된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다.

**연구문제 1.** 취학전환기 맞벌이 가정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와 집행기능 곤란 및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관계는 어떠한가?

- 1.1.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저·고집단에 따라 집행기능 곤란은 차이가 있는가?
- 1.2.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저·고집단에 따라 가정내 사회적 자본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취학전환기 맞벌이 가정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는 가정내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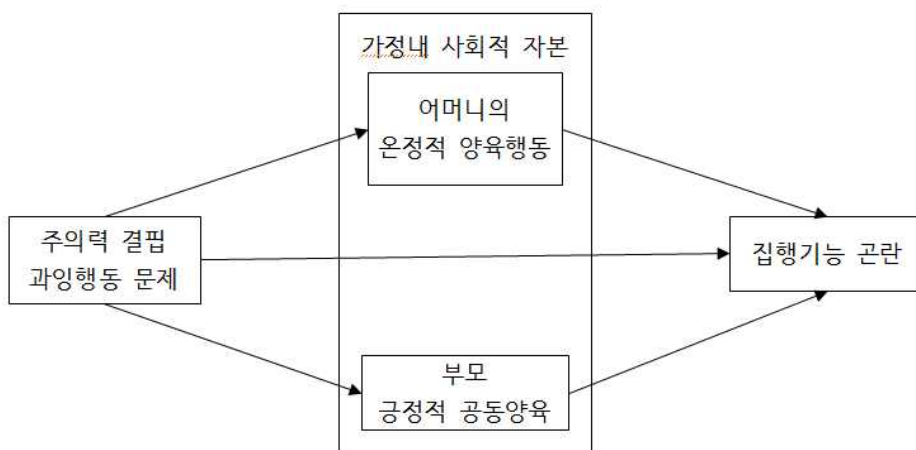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조사(한국아동패널, 2020)에 참여한 취학전환기 맞벌이 가정의 아동 즉 초등학교 1학년 아동 401명이었다. 이들은 8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아동 중 부모와 동거하며 부모 모두가 취업 상태인 아동 606명 중 ADHD판정 문항들의 원점수 총점이 백분위 하위 25%와 75%이상에 해당하는 아동이었다. 이들의 평균 월령은 88.0개월( $SD= 1.44$ ), 월령 범위는 최소 85.0개월 ~ 최대 92.0개월이었다.

성별·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저·고집단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성별 구성은 남아 194명(48.4%), 여아 207명(51.6%)이었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의 저집단은 227명(56.6%), 고집단은 174명(43.4%)이었다. DSM 기준에 의한 ADHD의 임상과 준임상 사례에 해당하는 아동은 각 5명(1.2%)와 16명(4.0%)으로, 성별로는 남아 3명(1.5%)과 7명(3.6%), 여아 2명(0.9%)과 9명(4.3%)이었다. 그러나 ADHD로 진단을 받은 아동은 없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성별·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저·고집단별 빈도 분포

성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집단 <sup>a</sup>		
	저집단	고집단	전체
남	88(38.8) <sup>b</sup>	106(60.9)	194( 48.4)
여	139(61.2)	68(39.1)	207( 51.6)
전체	227(56.6)	174(43.4)	401(100.0)

a.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점수의 하위 25%, 상위 25% 점수 기준으로 구분함.

b. ( ) 속은 백분율.

연구대상 아동의 가구 특성으로 부와 모의 학력을 살펴본 바 각각 4년제 대학 졸업(43.6%, 40.1%), 전문대 졸업(21.8%, 27.4%), 고등학교 졸업 이하(24.1%, 24.4%), 대학원 졸업(10.5%, 8.0%)의 순으로 분포됨을 알 수 있었다. 월가구소득은 400만원 미만 18.2%, 400만원대 18.7%, 500만원대 28.9%, 600만원 이상 34.2%의 분포를 보였다.

### 2. 측정도구

#### 1)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의 수준은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6-18)(오경자, 김영아, 2010)에서 ADHD를 DSM 진단기준에 따라 측정하는 문항들의 원점수 총점을 의미한다. 이에 CBCL 6-18의 120개 문항 중 ADHD 문제를 DSM 진단기준에 따라 측정하는 7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문항 내용은 ‘집중을 잘 못하고 쉽게 산만

해진다.’, ‘충동적이거나 생각해 보지 않고 행동한다.’와 같이 행동이 부산하거나 일관성이 없고 한 가지 일에 주의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욕구의 충족을 즉각적으로 바라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다(한국아동패널, 2021). 각 문항에는 0, 1, 2점으로 반응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분석데이터에서 문항신뢰도는 .83으로 나타났다.

## 2) 집행기능 곤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간편형 자기보고식 아동청소년 집행기능 곤란 질문지(송현주, 2014)로 측정되었다. 이 질문지는 4개의 하위영역 즉 계획-조직화 곤란(11개 문항), 행동통제 곤란(11개 문항), 정서통제 곤란(8개 문항), 부주의(10개 문항) 하위영역의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점(전혀 아니다) ~ 3점(자주 그렇다)의 Likert식 척도에 대한 문항신뢰도는 하위영역간 .87~.91의 범위로 나타났고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6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수록 집행기능의 곤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에 의해 측정된 문항평균 점수를 집행기능 곤란 점수로 조작적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 3) 가정내 사회적 자본

본 연구에서는 가정내 사회적 자본으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의 두 변인을 포함한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그리고 권희경(1999)이 부모의 양육방식 측정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에서 자체 제작한 문항 6개로 조사되었다(한국아동패널, 2021).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식 5점 척도에 대한 반응의 신뢰도 값은 .86으로 나타났다.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은 McHale(1997)의 공동양육(coparenting)을 측정하는 가족통합, 비난, 갈등, 훈육의 4개 하위영역(16개 문항) 중 부모-자녀 간, 배우자 간에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한영숙, 2019) 가족통합(family integrity) 하위영역의 7개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어머니가 배우자, 아이와 함께 있을 때(5개 문항)와 배우자 없이 아이와 있을 때(2개 문항) 공동 양육행동을 1점(전혀 그렇지 않다) ~ 7점(매우 그렇다)의 Likert 척도에 반응하도록 하였다. 7개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는 .85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을 측정하는 각 도구에서 조사된 문항평균 점수를 각 변인의 점수로 간주하였고, 변인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변인의 특성 즉 온정적 양육행동이나 긍정적 공동양육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 3. 자료분석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수준의 양극단 즉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 두 종속변인 각각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통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와 집행기능 곤란 및 가정내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먼저 본 연구의 연구대상 선정기준 서술에서 밝힌 바와 같이 8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맞벌이 가정 아동 중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총점의 하위



25%에 해당하는 아동을 ‘저집단’, 상위 25%에 해당하는 아동을 ‘고집단’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의 집단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연구문제 1의 해결을 위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저·고집단에 따른 집행기능 곤란과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집행기능 곤란의 하위영역과 전체,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별로 *t*검증을 하였다.

연구문제 2의 해결을 위한 기초분석으로서 가정내 사회적 자본과 집행기능 곤란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가정내 사회적 자본에 해당하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과 집행기능 곤란 하위영역 및 전체의 점수 간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매개효과의 분석을 위해서는 SPSS에서 PROCESS macro 3.5.3(Hayes, 2021)을 사용하였다. Process macro는 구조방정식 분석과 마찬가지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므로 매개효과의 분석 전에 자료 분포의 정규성 검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특히 매개효과의 검증 시 편향 보정된 부트스트랩(bias-corrected bootstrap) 값으로 디폴트 되어 있어 검정력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Hayes & Rockwood, 2017). 또한 Process macro는 직접효과와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각각을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검증이 가능한 방법이라는 점(송진영, 2014)에서 기존의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 방법과는 차별적이다. 이에 구조방정식 모델과 같이 매개효과의 분석방법을 정교화함으로써 최근 단순매개효과 뿐만 아니라 다중매개효과, 이중매개효과 등의 검증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분석방법이다(Hayes, 2013; Preacher & Hayes, 2008).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가정내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PROCESS macro 3.5.3의 모델4를 이용하였다. 먼저 연구모형의 각 경로 유의성을 파악하기 위해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나아가 가정내 사회적 자본에 해당하는 두 변인 즉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의 각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PROCESS macro 3.5.3의 모델4를 활용해 부트스트랩(bootstrap) 샘플 5000개, 신뢰구간 95%로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표본 자료로부터의 부트스트래핑은 간접효과 분석에서의 분포 비정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이는 방법으로, 표본 크기와 동일한 수의 표본을 무선적으로 복원추출(random selection with replacement)함으로써 추정치에 대한 경험적 분포를 생성해 분석하는 방법이다(Shrout & Bolger, 2002).

### Ⅲ. 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 1 즉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와 집행기능 곤란 및 가정의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기 위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저·고집단에 따른 집행기능 곤란과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t*검정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저·고집단에 따른 집행기능 곤란과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차이분석 결과 (N = 401)

변인	하위영역·하위변인	저집단(n= 227)		고집단(n= 173)		t
		M	SD	M	SD	
집행기능 곤란	계획-조직화 곤란	1.32	.29	1.84	.38	-14.95***
	행동통제 곤란	1.42	.21	1.52	.35	-12.99***
	정서통제 곤란	1.24	.31	1.60	.46	-9.01***
	부주의	1.31	.32	1.79	.43	-12.89***
	전체	1.25	.22	1.69	.31	-15.82***
가정내 사회적 자본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	3.91 5.55	.52 .92	3.50 5.09	.50 .91	7.89*** 5.04***

\*\*\*  $p < .001$ .

표 2에서 보듯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하위영역인 계획-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의 및 전체 각각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저·고집단에 따른 차이가 유의도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 = -14.95$ ;  $t = -12.99$ ;  $t = -9.01$ ;  $t = -12.89$ ;  $t = -15.82$ ). 이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계획-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의 및 집행기능 곤란 전체의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가정내 사회적 자본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점수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저집단( $M = 3.91$ ;  $SD = .52$ )이 고집단( $M = 3.50$ ,  $SD = .50$ )보다 유의하게 높고( $t = 7.89$ ,  $p < .001$ )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 점수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저집단( $M = 5.55$ ,  $SD = .92$ )이 고집단( $M = 5.09$ ,  $SD = .91$ )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 = 5.04$ ,  $p < .001$ ). 따라서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가정내 사회적 자본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의 각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문제 2 즉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가정내 사회적 자본인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과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아동의 가정내 사회적 자본과 집행기능 곤란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 가정내 사회적 자본과 집행기능 곤란간의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N = 401)

가정내 사회적 자본	집행기능 곤란				
	계획-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의	전체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43***	-.39***	-.32***	-.37***	-.45***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	-.35***	-.35***	-.25***	-.33***	-.38***

\*\*\*  $p < .001$ .

표 3에 의하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집행기능 곤란의 하위영역 및 전체간의 상관계수는 -.45 ~ -.32로 모두 유의도 수준 .001에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수

준이 높을수록 집행기능 곤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과 집행기능 곤란의 하위영역 및 전체간의 각 상관계수 역시  $-.38 \sim -.25$ 로서  $.001$  유의도 수준에서 부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즉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 수준이 높을수록 집행기능 곤란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내 사회적 자본과 집행기능 간에 부적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관관계 분석에 기초하여,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가정내 사회적 자본인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과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모델4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제시된 각 영향 경로들의 유의성을 보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는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B = -.09, t = -7.69, p < .001$ )과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 $B = -.11, t = -5.59, p < .001$ )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집행기능 곤란( $B = -.09, t = 16.47, p < .001$ )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B = -.10, t = -3.95, p < .001$ )과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 $B = -.05, t = -3.16, p < .01$ )은 집행기능 곤란에 부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경로 유의성을 연구모형에 적용하여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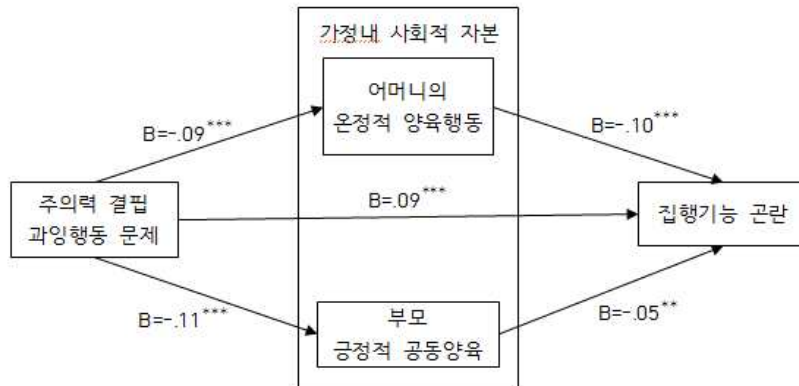


그림 2.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가정내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의 도식  
\*\* $p < .01$ , \*\*\* $p < .001$ .

표 4.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가정내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독립 변인	매개 변인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					집행기능 곤란				
			B	SE	t	LLCI	ULCI	B	SE	t	LLCI	ULCI	B	SE	t	LLCI	ULCI
주의력 결 핍 과잉행 동 문제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																	
R			.36				.27					.74					
F (df1/df2)			59.18***	(1/398)			31.21***	(1/398)				156.33***	(3/396)				

\*\* $p < .01$ , \*\*\* $p < .001$ .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 미치는데 있어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을 사용하였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을 각각 경유하여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부분매개 효과를 5000번 반복 추출하여 부트스트래핑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간접효과 검증<sup>a</sup>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간접효과	부트 SE	부트 LLCI	부트 ULCI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집행기능 곤란	.0088	.0024	.0043	.0137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	집행기능 곤란	.0051	.0020	.0015	.0094
		전체	.0139	.0026	.0091	.0192

a. 효과의 유의성 판단을 돕기 위해 이후에는 간접효과 검증 관련 수치를 소수 4째 자리까지 제시함.

표 5에서 보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경유하여 집행기능 곤란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었다( $B = .0088, CI [.0043 \sim .0137]$ ).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을 통해 집행기능 곤란에 이르는 경로에서도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B = .0051, CI [.0015 \sim .0094]$ ).

총 간접효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0139( $CI .0091 \sim .0192$ )로 나타났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직접효과( $B = .0894, CI [.0787 \sim .1001]$ )와 함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 미치는 총효과는 .1033( $CI .0928 \sim .1138$ )이었다.

간접효과 검증 관련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가정내 사회적 자본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 미치는데 있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높을수록 그 수준이 낮아지며 다시 집행기능 곤란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쳐 곤란도를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취학전환기 맞벌이 가정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와 집행기능 곤란 및 가정내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 그리고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와 집행기능 곤란 간의 관계를 알기 위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의 저·고집단 간 집행기능 곤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집행기능 곤란의 4개 하위영역과 집행기능 곤란 전체의 각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DSM-IV의 ADHD 진단기준에 의하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는 주의의 집중력 부족, 충동충제 능력의 감소, 과제와 무관한 행동을 과하게 하거나 상황에 맞게 조절하지 못함, 규칙 따르기의 문제를 보인다(Barkley, 1997). 그러므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자신의 정신 표상을 조절하여 목표 행동을 계획하고 충동을 억제하며 주의집중하여 작업기억을 조절하는 상위인지 기제인 집행기능(강문선, 2019; 박지현, 송현주, 2016)의 곤란을 경험하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수준이 높은 아동은 ADHD 성향의 일차적 증상으로 인지적 과업수행과 학습문제의 해결에 요구되는 집행기능에 곤란을 경험한다는 박지현과 송현주(2016), 전숙영(2018) 등의 연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민주와 하은혜(2011, 2013)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4개 하위영역 모두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그 곤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ADHD아동의 집행기능 모든 하위영역에서 결함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민운정(2013)의 결과와는 일부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는 집행기능의 하위영역 또는 하위요소가 다양하므로 그 구성요소들을 측정·평가하는 방법도 다르다(송현주, 2014; 이주미, 2018)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였다. 즉 본 연구는 계획-조직화, 행동통제, 정서통제와 부주의로 구성된 집행기능 평가척도(송현주, 2014)를 사용하였으나 민운정(2013)의 연구에서는 계획, 억제, 주의 및 작업기억의 4개 요소로 집행기능을 구성하고 지능검사의 일부 하위검사들과 스트룹(Stroop) 검사를 사용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였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ADHD아동이 집행기능 척도 전반에서 결함을 보이면서도 억제 능력과 같은 하위 집행기능은 연구들 간 비교적 일관되게 결함이 나타나지만 전환능력, 계획능력, 작업기억 같은 집행기능은 연구마다 그 결함에 있어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다(Sergeant, Geurts, & Oosterlaan, 2002)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의 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ADHD성향과 집행기능의 관계 이해를 위해 추후 다양한 집행기능 구성요소와 측정방법으로써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와 가정내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를 알기 위해 먼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의 저·고 집단에 따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수준이 높은 집단 아동의 어머니는 낮은 집단 아동의 어머니에 비해 낮은 온정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의 긍정적인 공동양육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수준이 낮은 집단의 아동 어머니에서 보다 그 문제 수준이 높은 아동의 어머니에서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ADHD아동의 어머니가 일반 아동의 어머니보다 부정적 반응양식을 보이고(Barkley & Cox, 2007) 일반아동에 비해 ADHD아동이 부모로부터 덜 애정적인 양육을 받거나 돌봄이 적다고 지각한다는 보고(고명정, 박은진, 이대환, 최영민, 김봉석, 2011; 송연주, 2015)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아동의 ADHD증상이 유전적으로 두뇌 기능의 문제에서 기인하므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으로 ADHD증상이 출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Barkley, 1997). 맞벌이 가정 어머니는 양육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높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를 가진 자녀의 과잉활동적이고 충동적이며 부주의

한 행동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통제적이거나 강압적인 행동과 언어를 표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송연주, 2015; 신연희 등, 2010; Barkley & Cox, 2007)으로 해석되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의 수준에 따른 부모의 긍정적 공동양육의 차이는 선행연구가 발견되지 않아 해석에 주의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수준이 높은 집단 아동의 부모가 낮은 집단 아동의 부모보다 낮은 긍정적 공동양육 수준을 보인 것은 자녀의 높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에 따른 부모의 양육 긴장이 높은 상태에서 부모는 서로 협력하는 긍정적인 가족통합적 공동양육 보다는 갈등적 공동양육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었다. 아동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외에 부수적인 행동 특징, 예를 들면, 쉽게 좌절하고 완고한 태도나 자기충족적 주장이 강하고 불안정한 기분 상태를 빈번히 노출하게 되면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을 동반하게 된다(최고은, 권지성, 2013)는 것은 이러한 해석을 지지해 주었다.

매개효과의 분석을 위한 기초분석으로 아동의 가정내 사회적 자본과 집행기능 곤란간의 관계를 알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부모의 긍정적 공동양육 모두 각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집행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들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었다(김은향, 2020; 민미희, 2018, 2020; 박보경, 노지운, 2020; Meuwissen & Englund, 2016; Valcan et al., 2018). 이러한 결과는 취학전환기 자녀가 주어진 상황을 계획 및 조직화하고 자신의 정서와 행동 및 부주의함을 적절히 통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행동이 중요하다(김형연, 김민주, 2020)는 것을 시사해 주었다. 유아기 이후 취학전환기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집행기능의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하다(Anderson, Anderson, Northam, Jacobs, & Catroppa, 2001)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대한 양육행동의 영향이 부와 모에 따라 다르다는 보고가 있으므로(Lam, Chung, & Li, 2018) 추후에는 박보경과 노지운(2020)의 제안과 같이 온정적 양육행동과 집행기능 간의 관계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비교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모의 긍정적 공동양육은 주목되는 가정내 사회적 자본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학부모로 이행하는 경로가 배우자와 함께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강문정, 2017), 부부 간의 긍정적인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은 맞벌이 부부의 공동양육 대상인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이므로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이아름, 2020; 이지원, 최지은, 김현경, 2020). 이에 부모의 긍정적 공동양육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집행기능 곤란도가 낮아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양육과 아동의 정서 및 행동 조절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수용될 수 있었다. 양육 상황에서 부모 간 지지적인 공동양육 수준이 높으면 자녀는 부모의 정서와 행동의 조절과정을 모델링하여 정서조절 능력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며(Chang, Halpern, & Kaufman, 2007), 반대로 자녀가 부모간의 비난과 갈등의 부정적 공동양육에 노출되면 정서의 조절을 효과적으로 하기 어렵다(이지원 등, 2020; Davies et al., 2002). 따라서 취학전환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부모의 긍정적 공동양육은 부모 간 일관된 자녀 지지와 예측가능한 반응을 통해 자녀가 부모의 요구를 내면화하도록 하여 집행기능의 발달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었다.

이처럼 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부모의 긍정적 공동양육과 같은 가정내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발달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음(조광현, 배울미, 2018; 이현철, 천희영, 2021)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한국 가정양육의 맥락 다변화를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가정내 사회적 자본 요소들과 관련하여 논의함으로써(이지원 등, 2020; 이현철, 천희영, 2021) 아동·보육학 영역에서 아동의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의 접근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 부모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였다.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와 집행기능 곤란과의 관계에서 가정내 사회적 자본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는 집행기능 곤란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 미치는 직접 효과는 연구문제 1의 결과 및 연구모형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로 인해 ADHD성향이 아동 자신의 목표행동 계획 및 조직화, 정서와 행동의 억제, 주의집중 조절 등의 상위인지 기능인 집행기능의 발달이 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인지적 결핍 가설(Kendall, 1993)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었다(김민주, 하은혜, 2011, 2013; 전숙영, 2018).

가정내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 미치는 간접효과를 보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 각각은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수준에 영향 받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지고 이는 다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의 취학전환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집행기능이 원만하게 발달하여 학교적응을 기대하는 학부모로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요구하는 양육 맥락에서의 역할 갈등과 양육 관련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강문정, 2017). 덧붙여 자신의 자녀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를 보인다면 그 부모는 일반아동의 부모에 비해 양육의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ADHD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경험 중심 현상이 ‘멍에’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도, 폭발, 포기, 수용의 과정을 나선형 구조로 반복 경험한다는 보고(김형숙, 2007)는 양육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를 보이는 자녀에 대한 심리적 지원 실패, 기대의 좌절 등을 반복 경험하면서 부모는 상호 협력적인 가족통합적 양육의 실현 또한 어려워져 자녀가 집행기능의 곤란을 겪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아 양육스트레스에 의해 부모의 부정적 감정이 부모 공동양육으로 전이된다는 Deater-Deckard(1998)의 이론적 모델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처럼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매개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아동의 발달에서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 미치는 총효과의 대부분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에 의한 직접효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간접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결과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변인과 관련하여 해석하면, 유아기와 달리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연령이 증가하면 자기조절은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질에 의한 내면화 즉, 외적 통제에 의한 발달보다는 내적 통제에 의해 스스로 자기 행동을 통제·조절하는 방향으로 발달을 보이므로(Kopp,

1982) 부모 양육행동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박보경, 노지운, 2020)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또 매개변인의 간접효과를 공동양육과 관련하여 설명하면, 자녀 양육의 양과 질을 함께 고려하여야 아동발달과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나 긍정적 공동양육이라는 양육의 질적 측면만 고려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부모 양육참여의 절대적인 양(parenting time)이 어느 정도 선행되어야 공동양육의 질적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Fabricius, Sokol, Diaz 그리고 Braver(2012)의 모델에 근거할 때 맞벌이 가정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에 직면한 아버지가 양육자로서의 적극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양육참여를 하지 않아 양육의 양적 측면에서 부족할 가능성(유지영, 2017)이 있었다.

따라서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크기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이지원 등(2020)의 주장처럼 Fabricius 등(2012)의 모델 검증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학교적응 지원과 관련된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요소가 갖는 상대적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아기를 지나 초등학교에서 새로이 주어지는 학업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과 활동, 그리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학부모의 교육적 지원이라고 한다(전진원, 전자배, 2016). 부모의 교육적 지원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를 가진 자녀가 학령기 초기부터 학업수행과 학습습관, 나아가 교우와 교사 간 관계를 맺는데 영향 미침으로써(노보람 등, 2020) 집행기능 곤란의 발달에 있어 온정적 양육행동 대비 상대적으로 비중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ADHD로 진단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다수가 이루어져 본 연구의 이론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ADHD진단을 받지 않은 아동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변인을 다루었으므로 본 연구의 해석과 논의의 수용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가정내 사회적 자본으로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행동과 부모 공동양육을 활용하였으므로 아버지 입장에서의 부모-자녀관계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한국아동패널에서 제공하는 종단적 자료와 아동의 발달 관련 다양한 환경 변인들을 활용하여 매개효과의 오염 가능성을 줄이고 보다 다양한 매개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들을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취학전환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아동의 집행기능 발달과 그들의 맞벌이 가정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수준이 높은 아동은 집행기능의 곤란도가 높다고 밝혀짐으로써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의 인지기능인 집행기능을 직접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관련하여 박완주, 박신정 그리고 황성동(2015), 박은미와 정대영(2012), 윤주연과 이효신(2011), 조정연 등(2010)의 연구들은 인지행동적 접근의 프로그램이 ADHD아동의 집행기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보고를 함으로써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아동의 그 특성으로 인한 교육 및 사회 환경에서의 부정적 발달결과를 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인지행동적 접근은 집단활동과 게임놀이를 위주로 프로그램 참여 아동이 인지활동 전략을 세우고 재사고와 사고의 평가과정을 거쳐 전략을 수정하는 사고의 변화를 특징으로 하므로 교육 중재 프로그램으로 강조되기도 한다.



둘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와 집행기능 곤란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인 가정내 사회적 자본과 관련하여, 맞벌이 가정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아동의 부모를 위한 시사점으로는 어머니도 자신의 양육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정서를 제거하는 인지행동적 부모 훈련으로 양육의 효능감과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증진하는 것을 들 수 있다(한선화, 현온강, 2008). 이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를 가진 자녀와 처음 맺는 부모-자녀 관계 경험의 중요성을 우선 인식하고(송연주, 2015), 자녀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를 이해·수용하며 자녀의 문제적 행동과 반응에 대한 분노를 조절하는 감정조절 기술을 익혀 양육의 어려움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한선화, 현온강, 2008). 특히 가족의 친화적이고 통합적인 분위기 조성이 더욱 요구되는 맞벌이 가정(이종하, 유수현, 2011; 홍예지, 이강이, 2020)의 부모를 위해서는 부모는 맞벌이 가정 특성에 맞는 차별적 개입(differential intervention)과 단계적 개입을 통해 공동양육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제안된다(이지원 등, 2020). 이는 COVID-19로 인한 가정내 양육 부담의 증가 상황(박원순, 2021)에서 더욱 요구되는 것이라 하겠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를 가진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취학전환기에 맞벌이 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outside the family)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정외 사회적 자본은 가정내 사회적 자본과 함께 아동의 양육, 교육과 관련한 지역사회 구성원 및 기관과의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이다(이현철, 천희영, 2021). 학령기 아동의 부모는 학교에서의 학부모교육 보다 학부모 네트워크나 사교육기관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며 이를 통해 자녀의 학업과 양육 지원을 받는다고 보고되었다(강문정, 2017). 일과 양육을 양립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 학부모 대상의 학교 학부모 교육과 학교사회복지사, 방과후 돌봄교실의 지도사 및 위(Wee) 프로젝트(한국교육개발원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2021)를 통한 학교와 학부모 연계망, 교사와 교우 및 학부모간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은 학령기에 확장된 구조적 사회 자본(조광현, 배율미, 2018)으로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에 대한 교육적 관심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가정외 사회적 자본은 가정과 양육 및 교육 관련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로 강화될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지역사회 복지기관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뿐 아니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와 집행기능 곤란을 보이는 자녀를 둔 가정의 가족구성원, 특히 어머니의 심리정서 상태를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가정외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기여할 수 있다. 덧붙여, 정보화와 코로나시대의 영향으로 언택트(untact) 사회로 급속히 전환하는 가운데 어머니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는 정보적 및 심리사회적 지지는 아동에게 유용한 가정외 사회적 자본이 될 수 있다(윤종빈, 김진주, 2019; 이현철, 천희영, 2021).

취학전환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를 가진 맞벌이 가정 아동의 학교적응과 그 부모의 학부모 적응에 본 연구가 도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강문선 (2019). 집행기능의 교육신경학적 해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문정 (2017). 초등학교 학부모 되기: 상위권 자녀를 둔 서울 거주 중산층 엄마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옥려 (2014).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아동의 뇌 과학적 접근. **한국초등교육**, 25(1), 315-333. doi:10.20972/kjee.25.1.201403.315
- 고명정, 박은진, 이대환, 최영민, 김봉석 (2011).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에서 어머니의 대상관계가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2(4), 219-227. doi:10.5765/jkacap.2011.22.4.219
- 김민주, 하은혜 (2011). 청소년의 ADHD증상이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4(4), 43-58.
- 김민주, 하은혜 (2013). 청소년의 ADHD 증상이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2), 313-330. doi:10.15842/kjcp.2013.32.2.003
- 김민진 (2008).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입학 초기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 **교육과학연구**, 39(1), 181-210.
- 김세영 (2012). 가정 내 사회적 자본과 가정배경이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라, 신나나 (2020).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6(5), 47-67. doi:10.14698/jkce.2020.16.05.047
- 김수정, 광금주 (2010). 초등 일학년 학교적응의 예언 변인들 간 관련성 탐색: 단기·중단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19-37.
- 김은향 (2020).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아동 스마트미디어기기 의존, 집행기능 곤란, 화용언어능력의 구조적 관계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7), 1037-1059. doi:10.22251/jlcci.2020.20.7.1037
- 김형숙 (2007). 근거이론을 이용한 ADHD 아동양육경험. **가족과 문화**, 19(4), 193-222. doi:10.21478/family.19.4.200712.007
- 김형연, 김민주 (2020).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및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1(1), 105-121. doi:10.5723/kjcs.2020.41.1.105
- 노보람, 박새롬, 박혜준, 최나야 (2020). 학령초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교육지원 유형: 예측요인 및 교육지원 유형에 따른 자녀의 학교 적응. **아동학회지**, 41(1), 15-28. doi:10.5723/kjcs.2020.41.1.15
-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2018. 4). 청소년 ADHD 치료 실태 조사 결과 발표. <https://www.mdon.co.kr/mobile/article.html?no=16052>에서 2021년 9월 8일 인출
- 문영경 (2021).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유아기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감의 직렬 매개효과 검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7(5), 43-61. doi:10.14698/jkce.2021.17.05.043
- 민미희 (2018).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및 통제적 양육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2(3), 91-121. doi:10.22590/ecee.2018.22.3.91
- 민미희 (2020). 어머니의 권위적 양육행동,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및 아동의

- 미디어기기 중독 간의 구조적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12(3), 149-166. doi:10.36431/JPE.12.3.7
- 민운정 (2013). ADHD 성향을 보이는 학령기 아동의 언어능력 및 집행기능 특성.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보경, 노지운 (2020). 부모의 양육행동이 학령 초기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1(2), 163-179. doi:10.5723/kjcs.2020.41.2.163
- 박완주, 박신정, 황성동 (2015). 한국 학령기 ADHD 아동을 위한 인지행동중재의 효과 연구: 메타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45(2), 169-182. doi:10.4040/jkan.2015.45.2.169
- 박원순 (2021).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통한 육아존중. **육아정책포럼**, 68, 29-35.
- 박은미, 정대영 (2012). 상위인지전략중심의 가정연계 게임놀이프로그램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 아동의 문제행동, 집행기능 및 어머니의 양육반응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8(3), 487-521.
- 박지현, 송현주 (2016). ADHD 성향 초등학교 고학년의 계획 및 조직화 중심 집행기능 향상 프로그램 효과. **재활심리연구**, 23(1), 159-171.
- 송연주 (2015). 초등학생의 ADHD 증상이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 돌봄과 교사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1), 203-229.
- 송진영 (2014). 중년여성의 문제음주수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4(4), 523-553. doi:10.15709/hswr.2014.34.4.523
- 송찬원 (2009). 학습장애아동과 ADHD아동 및 일반아동의 집행기능 특성.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현주 (2014). 간편형 자기보고식 아동청소년 집행기능 곤란 질문지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1), 121-137. doi:10.15842/kjcp.2014.33.1.008
- 신연희, 정현희, 최성열 (2010). 아동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증상,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및 자기 유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아동교육**, 19(3), 143-158.
- 오경자, 김영아 (2010).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매뉴얼**. 서울: 휴노컨설팅.
- 유지영 (2017). 책임성을 중심으로 본 남성들의 자녀양육 참여. **디지털융복합연구**, 15(10), 45-61. doi:10.14400/JDC.2017.15.10.45
- 윤종빈, 김진주 (2019). 한국적 사회적 자본에 대한 탐색적 연구. **문화와 정치**, 6(2), 171-206. doi:10.22539/culpol.2019.6.2.171
- 윤주연, 이효신 (2011).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집행기능 향상 프로그램 적용 효과.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0(4), 143-170.
- 이동미, 장혜인, 김호정, 배진, 박주희 (2021). 머신러닝 분석을 활용한 초등학교 1학년 ADHD 위험군 아동 종단 예측모형 개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7(5), 83-103. doi:10.14698/jkccce.2021.17.05.083
- 이미아 (2009). ADHD를 가진 아동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어머니 특성 및 자녀 특성과의 관계. **특수아동교육연구**, 11(2), 95-111. doi:10.21075/kacs.2009.11.2.95
- 이아름 (2020). 취업모의 일-양육 양립 이점과 자녀상호작용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와 부모 공

- 동양육의 조절된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2(2), 51-71. doi:10.36431/JPE.12.2.4
- 이운경, 김민주, 윤기봉 (2018).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갈등, 온정적 양육행동 및 학령초기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9(3), 141-156. doi:10.5723/kjcs.2018.39.3.141
- 이재희, 김근진, 엄지원 (2017). 초등자녀 양육지원 방안. (연구보고 2017-13).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https://repo.kicce.re.kr/bitstream/2019.oak/808/2/%ec%b4%88%eb%93%b1%ec%9e%90%eb%85%80%20%ec%96%91%ec%9c%a1%ec%a7%80%ec%9b%90%20%eb%b0%a9%ec%95%88.pdf>에서 2021년 9월 20일 인출
- 이중하, 유수현 (2011). 아동의 ADHD 경향과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4(1), 1-16. doi:10.47801/KJIMH.04.1.1
- 이주미 (2018). 자기조절과 실행기능: 교육적 접근을 위한 고찰. **열린교육연구**, 26(2), 201-227. doi:10.18230/tjye.2018.26.2.201
- 이지원, 최지은, 김현경 (2020). 부모 공동양육의 양과 질을 반영한 잠재프로파일분석과 집단 간 사회인구학적 특성, 학령기 아동 정서조절능력의 차이. **아동학회지**, 41(6), 95-110. doi:10.5723/kjcs.2020.41.6.95
- 이현철, 천희영 (2021). 한국 영유아의 사회적 자본 의미에 대한 소고. **교육발전**, 40(3), 741-763. doi:10.34245/jed.40.3.741
- 이혜정 (2004).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출현율과 교사-부모간의 평정 일치도.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양미 (2020).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 갈등, 강압적 양육행동, 초등학교 자녀의 미디어기기 의존 및 집행기능 곤란 간의 구조적 관계. **학부모연구**, 7(4), 77-97.
- 전숙영 (2018). 초등학교 1학년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집행기능곤란의 매개효과.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3(3), 41-54. doi:10.23931/kacp.2018.13.3.41
- 전은아 (2019). 정서·행동문제가 있는 아동과 일반아동의 실행기능 및 학교생활적응 비교 :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진원, 전자배 (2016). 부모의 교육적 지원이 초등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 43(2), 5-31. doi:10.22804/jke.2016.43.2.001
- 정승아, 이수진 (2016). 학령 초기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에 미치는 아동 인성과 부모양육의 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5(2), 499-518. doi:10.15842/kjep.2016.35.2.009
- 조광현, 배울미 (2018). 유아기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척도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22(4), 245-269. doi:10.32349/ECERR.2018.08.22.4.245
- 조규영, 이설아 (2019).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갈등과 다차원적 건강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4(3), 3-18. doi:10.21321/jfr.24.3.3
-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 (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10), 123-133.
- 조정연, 윤주연, 신윤희, 송호준, 배민정, 구현진 (2010). 국내·외 실행기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중재) 동향 분석. **정서·행동장애연구**, 26(3), 127-149.

- 최고은, 권지성 (2013). ADHD성향 아동과 지지체계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5(3), 207-238. doi:10.20970/kasw.2013.65.3.009
- 최옥희, 김용미, 김영호 (2009). 생태학적 변인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22(4), 133-160.
- 최진오 (2010). 초등학생들의 ADHD 성향과 학교유대성간의 관계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2(3), 179-198. doi:10.21075/kacsn.2010.12.3.179
- 통계청 (2021. 06. 22).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90200](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90200) 에서 2021년 6월 22일 인출
- 한국교육개발원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2021). 위(Wee) 프로젝트, 우리가 희망이다. <https://www.wee.go.kr>에서 2021년 9월 10일 인출.
- 한국아동패널 (2020. 1). 파일 다운로드. [https://panel.kicce.re.kr/pskc/module/rawDataManage/index.do?menu\\_idx=56](https://panel.kicce.re.kr/pskc/module/rawDataManage/index.do?menu_idx=56)에서 2021년 9월 30일 인출
- 한국아동패널 (2021). 도구 프로파일. [https://panel.kicce.re.kr/pskc/board/index.do?menu\\_idx=42&manage\\_idx=26](https://panel.kicce.re.kr/pskc/board/index.do?menu_idx=42&manage_idx=26)에서 2021년 5월 31일 인출
- 한선화, 현운강 (2008). ADHD 아동의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ADHD 아동의 ADHD 증상에 대한 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26(2), 43-56.
- 한영숙 (2019).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공격적·협동적 행동의 종단적 관계: 부모공동양육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0(2), 75-86. doi:10.5723/kjcs.2019.40.2.75
- 한영숙 (2020).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과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간의 종단적 관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또래관계의 역할. *아동학회지*, 41(3), 13-23. doi:10.5723/kjcs.2020.41.3.13
- 홍예지, 이강이 (2020).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 유형화 및 영향요인과 결과요인 검증. *육아정책연구*, 14(1), 97-120. doi:10.5718/kcep.2020.14.1.97
- 황현주 (2011). 어린이집 교사가 인식한 ADHD성향 유아와 관련 변인간의 관계: 성, 연령, 거주지역과 기질, 부모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5(2), 46-64.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SM-5 Task Force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doi:10.1176/appi.books.9780890425596
- Anderson, V. A., Anderson, P., Northam, E., Jacobs, R., & Catroppa, C. (2001). Development of executive functions through late childhood and adolescence in an Australian sample. *Developmental Neuropsychology*, 20(1), 385-406. doi:10.1207/S15326942DN2001\_5
- Anthony, L. G., Anthony, B. J., Glanville, D. N., Naiman, D. Q., Waanders, C., & Shaffer, S. (2005).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ur problems in the classroom.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2), 133-154. doi:10.1002/icd.385
- Baggetta, P., & Alexander, P. (2016). Conceptualization and operationalization of executive function. *Mind Brain and Education*, 10(1), 10-33. doi:10.1111/mbe.12100

- Barkley, R. A. (1997). Behavioral inhibition, sustained attention, and executive functions: Constructing a unifying theory of ADHD. *Psychological Bulletin*, *121*(1), 65-94. doi:10.1037/0033-2909.121.1.65
- Barkley, R. A., & Cox, D. (2007). A review of driving risks and impairments associated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nd the effects of stimulant medication on driving performance. *Journal of Safety Research*, *38*(1), 113-128. doi:10.1016/j.jsr.2006.09.004
- Bronfenbrenner, U. (1979). Contexts of child rearing: Problems and prospects. *American Psychologist*, *34*(10), 844-850. doi:10.1037/0003-066X.34.10.844
- Carlson, S. M., Moses, L. J., & Claxton, L. J. (2004). Individual differences in executive functioning and theory of mind: An investigation of inhibitory control and planning ability.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87*(4), 299-319. doi:10.1016/j.jecp.2004.01.002
- Chang, J. J., Halpern, C. T., & Kaufman, J. S. (2007).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father's involvement, and the trajectories of child problem behaviors in a US national sample.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61*(7), 697-703. doi:10.1001/archpedi.161.7.697
- Cho, E., & Allen, T. D. (2012). Relationship between work interference with family and parent-child interactive behavior: Can guilt help?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2), 276-287. doi:10.1016/j.jvb.2011.12.002
- Cho, S. C., Kim, B. N., Kim, J. W., Rohde, L. A., Hwang, J. W., Chung, D. S. et al. (2009). Full syndrome and subthreshold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in a Korean community sample: Comorbidity and temperament findings. *Europea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18*(7), 447-457. doi:10.1007/s00787-009-0755-7
- Cicerone, K. D., Dahlberg, C., Kalmar, K., Langenbahn, D. M., Malec, J. F., Bergquist, T. F. et al. (2000). Evidence-based cognitive rehabilitation: Recommendations for clinical practice.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81*(12), 1596-1615. doi:10.1053/apmr.2000.19240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upplement), S95-S120. doi:10.1086/228943
- Collins, W. A., Madsen, S. D., & Susman-Stillman, A. (2002). Parenting during middle childhood.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Children and parenting* (2nd ed., Vol. 1, pp. 73-101).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doi:10.4324/9781410612137.ch3
- Cooklin, A. R., Westrupp, E., Strazdins, L., Giallo, R., Martin, A., & Nicholson, J. M. (2014). Mothers' work-family conflict and enrichment: Associations with parenting quality and couple relationship.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41*(2), 266-277. doi:10.1111/cch.12137
- Davies, P. T., Harold, G. T., Goeke-Morey, M. C., Cummings, E. M., Shelton, K., & Rasi, J. A. et al. (2002). Child emotional security and interparental conflict: Comparing the relative roles of emotional security and social learning processe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7*(3), 27-40. doi:10.1111/1540-5834.00207
- Deater-Deckard, K. (1998). Parenting stress and child adjustment: Some old hypotheses and new questions.

- Clinical Psychologist: Science and Practice*, 5(3), 314-332. doi:10.1111/j.1468-2850.1998.tb00152.x
- Deater-Deckard, K. (2005).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development: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2), 111-115. doi:10.1002/icd.383
- Fabricius, W. V., Sokol, K. R., Diaz, P., & Braver, S. L. (2012). Parenting time, parent conflict,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children' physical health. In K. Kuehnle & L. Drozd (Eds.), *Parenting plan evaluations: Applied research for the family court* (pp.188-213).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doi:10.1093/med:psych/9780199754021.003.0007
- Feinberg, M. E. (2003). The internal structure and ecological context of coparenting: A framework for research and intervention.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3(2), 95-131. doi:10.1207/s15327922par0302\_01
- Fenesy, M. C., & Lee, S. S. (2018). Executive functioning mediates predictions of youth academic and social development from parenting behavior. *Developmental Neuropsychology*, 43(8), 729-750. doi:10.1080/87565641.2018.1525384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Hayes, A. F. (2021, August). *The PROCESS macro for SPSS, SAS, and R*. Retrieved September 20, 2021 from <https://www.processmacro.org/download.html>
- Hayes, A. F., & Rockwood, N. J. (2017). Regression-based statistical mediation and moderation analysis in clinical research: Observations, recommendations, and implementat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98, 39-57. doi:10.1016/j.brat.2016.11.001
- Hoza, B. (2007). Peer functioning in children with ADHD.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2(6), 655-663. doi:10.1093/jpepsy/jsm024
- Kendall, P. C. (1993). Cognitive-behavioral therapies with youth: Guiding theory, current status, and emerging developm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2), 235-247. doi:10.1037/0022-006x.61.2.235
- Knudsen, E. I., Heckman, J. J., Cameron, J. L., & Shonkoff, J. P. (2006). Economic, neurobiological, and behavioral perspectives on building America's future workforc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3(27), 10155-10162. doi:10.1073/pnas.0600888103
- Kopp, C. B. (1982).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214. doi:10.1037/0012-1649.18.2.199
- Lam, C. B., Chung, K. K. H., & Li, X. (2018). Parental warmth and hostility and child executive function problems: A longitudinal study of Chinese families. *Frontiers in Psychology*, 9, 1063. doi:10.3389/fpsyg.2018.01063
- Margolin, G., Gordis, E. B., & John, R. S. (2001). Coparenting: A link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parenting in two-parent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1), 3-21. doi:10.1037/0893-3200.15.1.3

- McHale, J. P. (1997). Overt and covert coparenting processes in the family. *Family Process, 36*(2), 183-201. doi:10.1111/j.1545-5300.1997.00183.x
- Meuwissen, A. S., & Englund, M. M. (2016). Executive function in at-risk children: Importance of father-figure support and mother parenting.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44*, 72-80. doi:10.1016/j.appdev.2016.04.002
- Rice, F., Frederickson, N., & Seymour, J. (2011). Assessing pupil concerns about transition to secondary school.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2), 244-263. doi:10.1348/000709910X519333
- Ringer, N. (2020). Living with ADHD: A meta-synthesis review of qualitative research on children's experiences and understanding of their ADHD.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bil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67*(2), 208-224. doi:10.1080/1034912X.2019.1596226
-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doi: 10.3758/BRM.40.3.879
- Sergeant, J. A., Geurts, H., & Oosterlaan, J. (2002). How specific is a deficit of executive functioning for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Behavioral Brain Research, 130*(1-2), 3-28. doi:10.1016/S0166-4328(01)00430-2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doi:10.1037/1082-989X.7.4.422
- Valcan, D. S., Davis, H., & Pino-Pasternak, D. (2018). Parental behaviours predicting early childhood executive functions: A meta-analysi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30*(3), 607-649. doi:10.1007/s10648-017-9411-9
- Van Egeren, L. A., & Hawkins, D. P. (2004). Coming to terms with coparenting: Implications of defini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1*(3), 165-178. doi:10.1023/b:jade.0000035625.74672.0b
- Wiener, J., & Mak, M. (2009). Peer victimization in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Psychology in the Schools, 46*(2), 116-131. doi:10.1002/pits.20358
- Willcutt, E. G., Doyle, A. E., Nigg, J. T., Faraone, S. V., & Pennington, B. F. (2005). Validity of the executive function theory of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 meta-analytic review. *Biological Psychiatry, 57*(11), 1336-1346. doi:10.1016/j.biopsych.2005.02.006

논문투고: 21.10.11

수정원고접수: 21.11.26

최종게재결정: 21.12.15